

'사람이 머물고, 행복이 자라는 임실'

임실군수직 인수위원회, 활동보고·해단식 끝으로 26일간 활동 마무리

민선9기 임실군수직 인수위원회가 지난 10일 한독수 임실군수가 참여한 가운데 인수위원회 활동보고 및 해단식을 끝으로 26일간의 공식 활동을 마무리했다.

지난 6월 15일 공식 출범한 인수위원회는 민선9기 군정의 안정적인 출발을 지원하기 위해 군정 전반에 대한 업무 보고를 시작으로 주요 현안사업 점검, 공약 검토, 현장방문, 각계 의견수렴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왔다.

인수위원회는 각 부서와 읍면을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받고, 사업별 실효성과 군민 체감도, 재원 확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민선9기 군정 운영의 기초를 다지는 데 중점을 뒀다.

또한 현장 사업장과 주요 복지시설 방문을 비롯해, 임실군청 노동조합 간담회, 분야별 전문가 및 자문위원 간담, 청년 공무원과의 대화 등을 통해 행정 내부의 목소리와 군민 생활 현장의 요구를 폭넓게 수렴했다.

특히, 활동을 통해 인수위원회는 민선9기 임실군의 군정 철학과 비전을 담은 새로운 군정목표도 마련했다. 민선9기 군정목표인 '사람이 머물고,



민선9기 임실군수직 인수위원회가 지난 10일 한독수 임실군수가 참여한 가운데 인수위원회 활동보고 및 해단식을 끝으로 26일간의 공식 활동을 마무리했다.

행복이 자라는 임실'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산업기반 취약, 생활서비스 불균형 등 지역이 직면한 구조적 과제를 극복하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기반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와 함께 군정목표 실현을 위한 4대 군정방향으로 △공공요문 농업경제 △감동되는 문화관광 △살맛나는 교육복지 △군민우선 열린행정을 제시했다.

인수위원회는 정책 제안, 현장 의견, 군정 비전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민선9기 임실군수직 인수위원회 백

서'도 이번달 내 발간해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한독수 임실군수는 "군정 전반의 점검을 위해 그야말로 밤낮없이 애써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열정과 책임감, 그리고 임실군의 밝은 미래를 향한 깊은 고민에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또한 "사람이 머물고 행복이 자라는 임실"이라는 군정목표 아래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공직자와 함께 책임감을 갖고 군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 군민 체감형 공약이행 박차

민선 9기 공약사업 실천계획 점검

순창군은 지난 9일 군청 영성회의실에서 최영일 순창군수 주재로 민선9기 출범에 따른 '부서별 공약사업 실천가능성 검토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민선 9기 출범 이후 공약 관련 처음 열린 이번 보고회에서는 관련 간부공무원이 참석해 공약사업 목록 확정 여부와 사업별 추진방향, 실현가능성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군은 이날 공약사업 목록 일부를 확



정했으며, 관계기관 협의와 주민 의견 수렴 등 사전 행정절차가 필요한 사업은 추진경과에 따라 순차적으로 공약 사업을 확정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실현가능한 공약이행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민선 9기 핵심공약인 △햇빛소

막마을 조성사업 △자녀 학원비 지원사업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전검토와 의견수렴을 통해 군민 눈높이에 맞는 사업으로 구체화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소상공인 활력수당 지원사업 △만남주택 100호 조성사업 등 10대 주요 공약에 대해서는 속도감 있는 추진을 통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에 행정력을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사업 실효성이 낮거나 과도한 재정부담이 우려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 방향을 면밀히 재검토하고, 재정 여건과 행정 현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실행력 있는 공약실천계획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순창군, 하반기 청년창업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순창군이 지역 청년들의 안정적인 창업과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하반기 순창군 청년창업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4~5개 사업장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며,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총사업비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사업장 인테리어를 비롯해 제품 생산 및 보관을 위한 기계·장비 구입, 창업 목적 달성에 필요한 직접 사업비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상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

주하고 있는 18세부터 49세까지의 예비창업자로, 고용보험 가입자나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최근 유사 창업 지원사업 수혜자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7월 13일부터 오는 24일 오후 6시까지 순창군청 인구정책과 청년정책팀(청년문화센터 2층)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 화장품 글로벌 수출 본격화

시, 북미·동남아 있는 해외박람회 참가 지원사업 추진

남원시와 (재)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이하 연구원)은 지역 화장품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북미와 동남아를 있는 해외박람회 참가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글로벌 수출 확대에 나섰다.

남원시는 지역 화장품 기업이 해외 전시회에서 제품을 홍보하고 현지 바이어와 직접 상담할 수 있도록 해외박람회 참가를 지원, 단순한 전시 참가를 넘어 수출상담, 시장조사, 사후관리까지 연계하는 현장 중심의 수출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계약 성과 창출에 중점을 두고 있다.

7월 13일부터 오는 15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 만달레이베이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Cosmoprof North America Las Vegas 2026에 지역 화장품기업 4개사가 참가해 북미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 박람회에서는 제품 전시와 바이어 상담은 물론 현지 시장 반응 조사, 유통 네트워크 발굴, 사후관리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해 참가기업이 북미 유통망을 확보하고 실제 수출 협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어 7월 23일부터 25일까지는 베트남 호치민에서 개최되는 Vietbeauty & Cosmebeauty Vietnam 2026에 참가해 동남아 시장 공략을 이어간다.

시는 지난해 베트남 박람회에 지역 화장품기업 3개사의 참가를 지원했으며, 그 결과 현지 바이어와 51건의 수출 상담을 진행하고 약 200만 달러 규모의 수출계약 추진 성과를 거두며 동남아 시장에서 제품 경쟁력을 확인했다.

올해는 지난해 확보한 현지 바이어



와의 후속 상담을 확대하는 한편 신규 바이어 발굴과 현지 유통망 구축을 병행해 실질적인 수출 성과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해외박람회 참가를 계기로 지역 화장품기업의 해외시장 접근성을 높이고 글로벌 판로를 확대해 지역 화장품산업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난해 동남아 시장에서 확인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북미시장까지 진출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글로벌 시장에서 남원 화장품의 브랜드 경쟁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또한 남원시는 차세대 식물엑소좀 기술개발과 바이오소재 산업 육성 등 미래 바이오산업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으며, 연구개발과 기업지원, 해외마케팅을 연계한 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양승모 남원시장은 "세계적으로 K-뷰티가 선풍적인 지름, 미국과 베트남 박람회를 연계해 북미와 동남아 시장을 동시 공략, 지역기업의 수출 확대와 해외시장 안착을 적극 지원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 지역과 기업, 시민이 함께 성장하는 남원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소방서 식정119소속 특별구급대, 심정지 40대 남성 소생

남원소방서는 식정119안전센터 소속 특별구급대가 급성심근경색으로 병원 이송 중 심정지가 발생한 40대 남성을 신속하고 전문적인 응급처치로 소생시켜, 한 가정의 가정을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9일 낮 '남원이 숨쉬기가 힘들고 심장이 쪼인다'라는 다급한 신고의 119 접수로 즉시 현장에 도착한 식정구급대는 참대에 앉아 고통을 호소하는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신속히 심전도를 측정, 측정 결과 급성심근경색 리듬이 확인되자 구급대원들은 현장에서 즉각 심장결핵 확장제를 복용시키고 수액을 처치하고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다.

하지만 병원으로 향하던 구급차 안에서 아찔한 돌발 상황으로 환자의 심장이 갑자기 멈춘 것이며, 구급대원들은



즉시 구급차를 정차하고 심전도를 재분석해 심실세동 상태임을 확인했다. 1분 1초가 시급한 상황 속에서 지체 없이 1회의 제세동(심장충격)을 실시했고, 가슴압박을 시행하자 환자는 구급차 안에서 가적으로 의식을 회복, 이후 구급대는 환자에게 당장 심장 수술이 필수적이라고 판단, 전북대학교 병원에 사전 연락을 위해 의료진이 즉각 대비할 수 있도록 조치한 뒤 환자를 안전하게 인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소식통

남원시 공동체지원센터 선진지역 우수사례 견학

남원시 공동체지원센터는 지난 9일, 2026 공동체 지역 혁신리더 아카데미 참여자들과 순창군 일원에서 선진지역 공동체 사례를 견학했다.

이번 견학은 지역 혁신리더 아카데미 교육과정의 5회차 현장 교육으로, 그동안 강의를 통해 익힌 공동체 운영과 주민자치, 지역 활성화 사례를 실제 현장에서 확인하고 남원 지역에 적용 가능한 실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자들은 순창군 풍산면 산울림센터와 누구나센터(협동조합)를 방문해 주민들이 스스로 협동조합을 운영하며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다양한 공동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을 살펴봤다.

특히 주민들이 행정의 지원을 받아 지역의 자원을 발굴하고 공동체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사례를 직접 확인하며, 주민 참여와 협력의 중요성을 체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강찬산 군립공원을 찾아 지역의 자연·문화 자원을 관광과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가는 사례를 둘러보며, 지역 고유의 자원을 활용한 공동체 기반 지역발전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자담 미생물 농약 제조교육' 실시

순창군은 지난 9일 친환경농업 연구센터 2층 대강당에서 한국농촌지도자순창군연합회 회원 40명을 대상으로 '자담 미생물 농약 제조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농업인 학습단체의 전문 기술을 향상시키고, 현장 중심의 친환경 자체 제조 기술을 보급해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 실천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특히 이번 사업은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기금의 이차수익을 활용에 추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으로, 농촌지도자회 회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조직 활성화를 도모했다는 점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교육에는 친환경 농업 분야의 권위자인 조영상 "자연을 닮은 사람들" 대표가 강사로 초빙되어 5시간 동안 심도 있는 강의를 진행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열염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